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수*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마닐라에 속해 있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은 외곽에 위치해 주변 환경이 도심처럼 되어있진 않습니다. 시내라고 부를 수 있는 곳까지 나가려면 택시를 타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택시비가 저렴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근교에 바로 시장이 있어 싼 값에 필리핀 음식들과 과일들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다수의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현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살 현지 학생들의 짧은 방학이 끝나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까지 모두 있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내다보면 필리피노도 우리나라만큼 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친절하고 잘 웃으며 친해지기 쉽습니다. 시설은 필리핀 현지 기준 괜찮은 편이지만 화장실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p>
수업	<p>첫날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배분된 1대1 수업 3시간, 6명 소그룹 수업 2시간, 12명(소그룹 두 개 합친 것) 대그룹 수업 3시간으로 하루 총 8시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과제는 거의 매일 있으며 선생님들은 다 좋았습니다. 쉽게 친해지고 다들 친구 혹은 필리핀 엄마를 자처하며 많은 부분에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 공감대 형성이 되며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는 편입니다. 수업준비는 그냥 과제만 하면 되고 일주일에 두 번 에세이, 매주 리스닝, 단어, 스피킹 테스트가 있습니다. 타학교 학생들도 많아 타학교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열흘 쯤 지나면 거의 친해져 있어 주말에 같이 놀러도 가는 편입니다. 교재는 각 수업에 따라 9개쯤 받는데 보통 그룹 형식에 따라 수업 방식도 달라집니다. 맨투맨은 선생님과 정말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하고 그룹형식의 수업은 매 수업마다 매 액티비티마다 짝을 바꿔가며 대화를 하고 앞에 잠깐 나서거나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말 그룹원,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p>
Activity	<p>민도로섬과 따가이파이만 다녀왔는데 특히 동계에 가시는 분이라면 새해를 여름에 맞이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가질 수 있어 좋고 교내 친구들</p>

	<p>과의 결속력을 다지고 타 학교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도 다양해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으며 구멍조끼만 하루 빌려 놀아도 자연 파도풀에서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p> <p>따가이따이는 음 별롭니다. 산 정상까지 말을 타고 가는 코스인데 정상에 도착하고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부와 말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한국인 사장의 태도에 신물이 났습니다. 말을 타고 움직이는 코스는 뺏으면 좋겠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30도를 넘는 온도가 주를 이뤘지만 평일 낮엔 학교에서만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답답할 정도의 더위를 느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습도가 낮아 한국의 여름보다 살만 했고 다들 더위에 크게 개의치 않고 긴 청바지 정도는 잘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는 언제 올지 모르니 접이식 우산을 챙겨 가지고 오히려 실내는 에어컨 온도가 낮아 추위를 느끼기도 하니 후드티나 집업 하나 정도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p> <p>모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물리니 모기약 챙겨가시면 좋습니다.</p>
안전	<p>솔직히 가기 전에는 보도되는 뉴스를 보며 총 맞고 타국에서 요절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지 말라는 곳만 가지 않으면 그럴 일은 전혀 없고 근처 시장도 통금 전에만 왔다갔다 하면 걱정 없습니다. 본인은 주말을 이용해 혼자 지프니, 버스, 지하철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성공했고 위험상황은 없었으나 정말 마닐라 도심으로 가는 길이라 안전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외진 곳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혼자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p> <p>필리핀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정이 많습니다. 물어보면 쉽게 알려주시고 잘 웃고 친절합니다. 어딜 가나 소매치기 방어를 위해 가방 등 소지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나 모든 상황에 의심의 눈초리를 치켜들고 경계에만 힘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p> <p>머물렀던 호스텔은 신기숙사로 2인 1실 사용했습니다. 구관과 달리 방마다 냉장고가 없어 불편한 점은 있었으나 있었으면 찌는 살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초기엔 한국과 너무 다른 환경에 이게 신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적응되었고 필리핀도 우리나라 만큼이나 컵라면이 많고 흔해서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쉽게 여러 컵라면을 사고 총마다 양 끝에 있는 휴게실에서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잘 되어 춥기도 합니다. 와이파이는 어정쩡한 편이나 한 달에 2만원 짜리 유심이 매일 800메가씩 기본 그 후는 느린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어 데이터 걱정은 잘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통신환경이 우리나라 같지 않아 잘 터지지 않는 곳이 좀 다분합니다.</p>

식사	<p>학교식당, 외부식당</p> <p>아침은 자기 바빠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지만 점심 저녁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한국인 이모가 한 분 계셔서 국이 아주 맛있고 전라도에서 나고 자라 음식을 잘 가리는 제가 인정할 정도로 김치가 맛있습니다. 잘 익은 묵은지와 생김치가 번갈아 나오기도 하며 총각김치가 아주 맛있어서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반찬이 다양하지 않고 주로 메인반찬 하나와 국이 전부인 식단이라 탄수화물 위주이긴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근처 식당에서는 싼값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양이 적어 초반에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한 끼 해결하다가 지치기도 하지만 곧 적응이 되고 값이 싸 이것저것 사먹으면 배가 찹니다. 근처 시장에는 값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해 저녁 먹고 친구들과 도란도란 나가보시면 좋습니다.</p> <p>또한 동네 근처에는 정말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지만 도심으로 나갈수록 밥값은 올라가 한국 물가에 버금가는 식당도 많습니다. 도심은 전역이 거의 비자카드가 가능하지만 부가세가 붙는 식당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p>
교통	<p>학교 호스텔에 살았기 때문에 별다른 통학 방법은 없었으나, 주말을 이용해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지프니(7페소, 한화 175원), 트라이씨클,버스(10페소, 한화 250원), 지하철(원거리 60페소 1,500원)로 싼 값에 이동이 가능하고 먼 거리는 우버/그랩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택시는 한국의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방법으로 어플을 이용해 기사와 1대1 매칭이 되고 설정 거리에 따라 미리 지불할 가격이 나오니 미터기를 들여다 봐야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격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싼 편이라 1시간 반 정도 타는 거리도 보통 8,000원 정도 나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엑티비티	30,000	교내 엑티비티 비용
그 외 생활비	370,000	
합계	4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어학연수 관련된 모든 후기는 현지 경험 후 나오는 필리핀 기준의 만족도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클리닉을 가더라도 약을 따로 챙겨주지 않고 간단한 처방전을 주는데 약값이 비싼 편이니 상비약은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쉽게 아프지 않더라도 환경이 달라 생활 초반에는 두통이나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쉬우니 지사제, 두통약, 종합 감기약 정도는 챙기시길 바랍니다.

집은 최대한 줄여서 가는 것이 올 때 캐리어 무게를 생각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싼값에 옷을 사기에는 특히 여자분의 경우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자주 입을 만한 옷들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호스텔 편의점에만 가도 한국 라면이 준비되어 있고 큰 마트에 가면 웬만한 한중일 음식들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돈은 그냥 한국에서 학기중에 생활하면서 썼던 정도를 준비해 가는 것이 낫습니다. 초기에 아껴쓰다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뭐 하면서 한국기준으로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쓰는 것만큼으로 쓰면서 좀 더 여유롭게 쓰는 편입니다. 필리핀 기준에서 산다면 30만원으로 충분하겠지만 15만원 정도만 더 보태 여유롭게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제가 가진 세상과 시야를 넓히는 데 좋은 경험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어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루이틀 관광으로 갔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법한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진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떤지 국가가 가진 경쟁력과 국가 전반의 소득수준이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어렵듯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4주가 너무 짧아 아쉽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학 학생들이 와서 한국말을 쓰는 일도 많아 영어가 막 늘어간다는 기분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 3주차에 들어서면 다들 한두 문장을 내뱉는 데에 익숙, 능숙해집니다. 하지만 곧 다음주 주말이면 한국에 가고, 가면 현지에 있는 것만큼 영어를 쓸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이걸 더 어떻게 꾸준히 해야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각자의 역량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6주였으면 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왔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근처 시장에 가 필리피노들과 찍은 셀피</p>	<p>수업 중 선생님과 칠판의 모습</p>
	
<p>민도로섬 모습</p>	<p>수업 중 찍었던 선생님께서 주신 도움자료</p>
	
<p>주말에 개인적으로 나가 찍었던 거리모습</p>	<p>마닐라 투어</p>